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마리산(摩尼山) 천단에 올라. 목은(牧隱)의 시운을 써서
登摩尼山天壇 用牧隱韻

여라 덩굴 더위잡고 바다 산 위 곧장 올라 — 捫蘿直上海山頭
강남 만 리 떠나는 배 앉아서 전송하네. — 坐送江南萬里舟
목은 노인 옛 시는 시판(詩板)에 적혀 있고 — 牧老舊題餘板在
단군의 묵은 자취 옛 제단에 남았구나. — 檀君陳跡古壇留
해와 달 분명하게 현포(玄圃)에 임하였고 — 分明日月臨玄圃
호탕한 바람 안개 흰 갈매기 파묻누나. — 浩蕩風煙沒白鷗
천지는 다함 있고 사람은 쉬 늙으니 — 天地有窮人易老
이생에 몇 번이나 노닐 수 있을런고. — 此生能得幾回遊

면양(沔陽)에서 이자민(李子敏)에게 보이다
沔陽 示李子敏

눈 쌓인 빈 객관서 추위를 못 이기니 — 雪深虛館不勝寒
다정한 이 빈번하게 왕래함 부끄럽네. — 慙愧情人數往還
말로의 곤궁함은 다만 나 혼자거늘 — 末路困窮唯我獨
장부의 높은 기개 그대 같기 어려우리. — 丈夫軒輊似君難
외론 등불 옛 이야기 꿈속의 꿈일러니 — 孤燈說舊夢中夢
지는 해에 고향 봄은 산 위의 산일러라. — 落日望鄕山上山
듣자니 역매(驛梅)가 봄 맞아 핀다는데 — 聞道驛梅春欲動
말고삐 나란하게 장안 향해 가겠는가. — 可能交轡向長安

■ 역사기행

임진왜란의 격전지 탄금대(彈琴臺)

▣ 향촌 권오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금년 201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 난지 420주년이 되는 임진년이다. 임진왜란을 일본역사에서는 분로꾸 게이쪼오(文祿慶長)의 역(役)이라고 한다.

이해를 맞이하여 호국과 민족정신을 더욱 가다듬고 기리기 위하여 2012.7.25 일자에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충주(忠州) 탄금대를 탐방하기로 하고 서울에서 목적지까지 2시간 소요 전세버스로 출발 도착하였다.

탄금대는 충주시 칠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강상류와 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경관이 아름답고 군사적으로는 방어진지의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를 역사적으로 상고하여 보면 탄금대가 있는 충주는 상고시대에 마한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낭자곡성을 쌓았고 고구려는 국원성을 신라는 국원소경을 두고 통일신라시대는 중원경을 설치하였다. 고려시대는 국원경을, 조선시대는 충청도 감영을 두었던 곳이다. 오늘날에는 충주시와 중원군이 충주시로 통합된 행정구역으로 확정되고 있다.

이곳의 지리적 환경은 육지로서는 남북 육운과 교통통신의 중심지이고 이곳 남한강 유역은 수운의 이점을 지닌 요지이다. 그리고 고대 야철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철생산이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충주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여 밝히고 있다. 이에 한 가지 예로서 충주 대원사 단호사 백운암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철조여래좌상은 모두 철조좌상으로 남아있다.

철생산은 중요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는 이곳을 모두 특별히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탄금대는 신라 진흥왕 때 우륵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탄주하였다고 하여 탄금대라는 명칭이 붙었다. 진흥왕이 551년 순시 차 머물렀을 때 하림궁(河臨宮)에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가야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탄금대에서 연주하는 소리가 강 건너 청금정까지 들렸다고 한다.

더욱이 탄금대는 임진왜란 때에 신립(申砬)장군이 이곳에서 배수(背水)의 진(陣)을 치고 왜군을 맞아 싸운 곳이다.

임진왜란의 발발은 선조 25년(壬辰年 1592년) 4월 14일자에 왜군 15만 대군이 9진으로 나누어 부산으로 상륙하였다.

조선의 중로(中路)를 택한 고니시 유끼나까(小西行長)은 양산, 밀양, 대구, 상주, 조령으로 북진하였다.

동로(東路)는 가또 기요마사(加藤淸政)가 경주, 영천으로 진출하였고 서로(西路)의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는 김해, 창원, 성주, 추풍령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육상에서는 전쟁중기와 말기에 도원수 권율(權慄)장군에 의하여 이치, 독산, 행주산성 전투에서 왜군을 격파하여 승리하였다. 또한 각 처의 의병활동과 명(明)의 지원군에 의하여 왜군을 물리쳤다.

왜의 9천여명의 수군(水軍)은 도오또오 다까도라(藤堂高虎), 구끼 요시다까(九鬼嘉隆)의 지휘 하에 부산 앞바다와 남해 바다에 보급품과 병력수송 등을 위하여 도서지역 중심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해상(海上)은 이순신(李舜臣)장군에 의하여 뛰어난 전술과 군사작전으로 한산도 등에서 왜의 수군을 격파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조정에서는 4월 17일 새벽에서야 왜군의 침공이라는 급보를 받았다.

이에 방어대책으로서 이일(李鎰) 순변사(巡邊使)로 하여금 조령을 수비하고 신립(申砬) 도순변사(都巡邊使)를 이일(李鎰)의 후속으로 내려보냈다.

또한 좌방어사 성응길(成應吉)을 죽령 방면으로 내려 보내고 우방어사 조창(趙敞)을 추풍령을 막도록 하였다.

좌의정 류성룡(柳成龍)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독려토록 하였다.

그러나 중로로 진군하는 고니시(小西)는 파죽지세로 북상하였다. 4월 24일이 되자 상주에서 이일(李鎰)이 패전함에 따라 이일(李鎰) 등을 충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4월 26일 고니시(小西)는 아무 저항도 받지 아니하고 솔개가 한가롭게 떠있는 조령을 넘어 충주에 입성하였다.

아군이 조령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병력이동이 작전 기일내에 순조롭지 못하였고 군졸의 기강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쳐서 이를 만회하고 서울 함락 위기를 저지하기 위함이였다고 평하는 이론도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법 상으로는 당연히 전세조건이 유리한 조령을 막아야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탄금대에서 신립(申砬)장군 부대와 고니시(小西)부대가 대결한 전투는 왜군의 조총부대가 일제히 삽시간에 아군을 사격하여 왔음으로 아군의 전열은 흩어지고 아군의 작전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전술과 무기의 우위를 점한 왜군에게 아군은 중과부적으로 병사전원이 분사하였다.

신립(申砬)장군은 끝내 결사 항전하였으나 탄금대에서 대패하여 수하장 김여물(金汝岉)과 함께 강물에 투신 자결하였다.

그때에 의병장으로 활약한 한분가운데 조웅 장군이 있었다.

조웅 장군은 무과에 급제하여 충주에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오백여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서울로 북상하는 왜군을 막아 큰 타격을 주고 적군 이동을 저지하였다.

조웅 장군은 아군과 군사작전을 할 때에 백기(白旗)를 가지고 작전 신호를 하였다 하여 백기장군이라고 불렀다.

조웅 장군은 의병을 전투지휘하다가 왜군에게 피랍되어 잔혹하게 사지가 찢기는 죽임을 당했다.

그의 무덤은 앙성면에 있으며 그곳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충신문(忠臣門)과 묘비석이 서있다.

또한 탄금대 공원 충주 문화원 앞 언덕마당에는 백기당(白旗堂) 조웅장군 기적비가 세워져서 장군의 충절을 말없이 전하고 있다.

이곳 탄금대에 건립된 위령탑에는 신립(申砬)장군 휘하 의병을 포함하여 8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비문이 음각되어 있다.

그리고 신립(申砬)장군의 순절비 순국지지가 있다. 그 외에 악성 우륵선생 추모비, 백기당(白旗堂) 조웅 장군비, 탄금대기비, 탄금대 노래비 등이 능선 길을 걷는 요소에 서있다.

또한 위령탑, 충혼탑, 열두대, 탄금정이 있으며 충주문화원 전시장, 강의실 등의 건물이 있고 산책로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구릉지에는 사찰과 선착장 나루터가 있어서 주위에는 송림과 잡목이 우거진 경치와 절벽을 따라 잔잔한 남한강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강 가운데 용섬도 아스라이 바라보면서 지난날을 회고하고 사색에 잠길 수도 있다.

저멀리 서쪽에 강을 가로지르는 아치형 콘크리트 철교는 건설 중에 있는데 완공될 때에는 충주시내 교통편의와 미학적인 풍광을 보여줄 것이다.

끝으로 탄금대 공원에 서있는 시비(詩碑) "감자꽃 (權泰應 作詩)" "탄금대"노래를 옮겨 적으면서 오늘의 탄금대 역사탐방의 참뜻을 다시 새겨본다.

"감자꽃" 자주꽃 핀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꽃 핀건 하얀감자/ 파보나마나 하얀감자.

"탄금대 노래" 탄금정 굽이돌아/ 흘러가는 한강수야/ 신립장군 배수진이/ 여기인가요/ 열두대 굽이치는/ 강물도 목메는데/ 그님은 어디가고/ 물새만이 슬피우나 (끝)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사람(2)

이 세상에는 약 70억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70억명의 사람들 중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신기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도 그렇다.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는 않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DNA도 다르다. 무엇 하나 똑같은 것이 없다.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의무에는 반드시 귀속자로서 주체가 있어야 하며, 그 주체가 곧 사람이다. 사람은 '인(人)'이라고 표현한다. 본인(本人), 타인(他人),상인(商人)들이 그 예이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인 권리능력을 인격이라고도 한다.

사람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의 두 가지가 있다. 자연인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자연인은 성·연령·종교·직업·심신, 기타 어떠한 것에 의하여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그 권리능력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근대법의 기본적 태도이다. 자연인은 살아있어야 하므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존하는 동안만 사람으로 인정된다.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람이다. 존속하는 모든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 또는 재산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그 권리능력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법인은 존속하여야 하므로 설립부터 청산종결까지의 기간만 사람으로 인정한다. 사람에 관한 속담은 한없이 많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

사람과 곡식은 가꾸기에 달렸다.
사람과 그릇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쓴다.
사람과 산은 밀리서 보는 것이 낫다.
사람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났나.
사람마다 저 잘난 맛에 산다.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
사람 속은 천길 물 속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겪어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보아야 안다.
사람은 늙어 죽도록 배운다.
사람은 얼굴보다 마음이 고와야 한다.
사람은 조석으로 변한다.
삶은 지내봐야 안다.
사람은 때 묻은 헌 사람이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사람이 세상에 나면 저 먹을 것은 가지고 나온다.
사람 한 평생이 물레바퀴 돌듯 한다.

사람은 생각할수록 신비한 존재인데 나는 특히 두 가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그 하나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사실이고 둘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이다.

먼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적어 본다. 똑같은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한때 과학만능 사상이 종교에 대한 생각을 앞지르기도 했지만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인간복제가 화제에 오르기도 하지만 어느 모로 보거나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룩한 힘이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곧 종교이다. 나는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종교와 과학은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어쨌든 조물주의 힘이 아니고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낼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자신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한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사망하는데 이것도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현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지내고 있지만 내가 원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의 백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태어난다. 과학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조물주가 정해준 데 따를 뿐인 것이다. UN World Food Program(WFP, 세계 식량계획)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는 10억 명의 기아인구가 있고 한편에서는 16억 명의 비만인구가 있다고 한다. 참으로 대조적인 숫자인데 누가 원해서 기아인구가 됐겠는가. 또한 누가 원해서 비만인구가 됐겠는가. 여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조물주의 커다란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에 관하여 살펴보자. 이 말은 2,500년 전 고다마 싯다르타(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곧 일곱 발자국을 걷고 난 후에 한 말이라는 전설이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나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물론 범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말인데 나에게는 '유아독존(唯我獨尊)'이 문제였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이 존귀하다는 뜻인데 불교라고 하는 큰 사상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구가 아닌 듯 싶다. 여러 사람의 견해도 들어보았다. 결국 자기만이 존귀하다든가, 자기만이 훌륭하다든가 하는 뜻이 아니라는 해석은 납득할 만 했다.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누가 훌륭하고 누가 그렇지 않다던가, 누가 아름답고 누가 그렇지 않다던가, 누가 건강하고 누가 그렇지 않다는 등을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다 다른 존재이고 한 번 뿐인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단 한 사람 뿐인 인간, 단 한 사람의 존재, 그리고 단 한 번 뿐인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니 이 이상 존엄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뜻이 이해가 된다. 한편,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사망할 때도 혼자이지만,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가족이나 그룹 또는 조직 속에서 상식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무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와의 약속에 따라 제재를 받기도 하고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 된다.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야 되며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된다. 조직 속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원래는 사람이란 무엇을 해도 좋은 것이다. 여기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의 참뜻이 있다고 하겠다.

사람 중에서 가장 옳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온 과거를 더듬어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간행물을 통해서 남을 모함하는 사람을 나는 가장 비겁한 사람으로 본다. 나의 일생 중에는 이러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말로 알려주는 것은 교양인으로서의 예의이다. 그런데 인쇄물을 통해서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유아독존(唯我獨尊)' 사상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제21회 전국서예대전 尹泰嬉씨 추사체 특선

△윤태희 서예가는 추사체(특선·입선) 三體章牌를 받았다.

月沼 尹泰嬉여사(74세, 파평윤씨,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 부인)가 사단법인 한국 서예·미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추사탄신 제226주년 추사서예대상 제21회 전국서예대전에 작품을 출품해 추사체 특선과 3체장을 각 입선했다.

지난 8월 4일 한국미술관전시장에서 입상작 시상식이 있었으며 8월 1일~4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입상작을 전시했다.

윤태희 서예가는 추사체특선은 吳先英 선생으로부터 사사하였으며 선생은 추사체 達人으로 알려져 있으며, 3체장은 한석봉 선생으로 부터 사사하였다.

한편 月沼서예가는 지난 제18회, 22회, 25회에 작품을 출품해 3체장에 입선했으며 금반 특선·입선하므로써 이제 명실공히 서예가로 인정받아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자료제공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

1분 명언

빈손으로 무(無)로
이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숨쉬고…
늙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
"삶"을 찬미하고 싶어라.
자연 속에 묻히고 싶어라.
'두메꽃' 처럼
'값 없는 꽃' 으로 살아가리라.
"외딸고 높은 산 꼴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중에
값 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 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 숨어서 되고 싶어라"

〈毛村 權五福〉

이 달 의 시

팔미도를 그리며

청하 권대욱

해송 끝 가지에 안개비 맺히면
내사 여덜미 하얀 등대에서
그림내와 너나들이 살 내음 섞어
오붓이 살고픈 먼 섬 하나 그리워
한다

해국 이파리 촘촘히 박힌 할미 바위
소금 머금은 갯바위에 눌러앉아
소솜 기억 속 전설도 낚아보고
비린 삶은 훠이 썰물에 보내
아린 육신 물안개 속에 감춰두고
임자 없는 전마선, 꿈 낚는 사공되어
머뭇대는 여명의 바다 깨우고
가끔은 먼 육지도 그리워해 볼 것이다

내 안의 섬은 꿈속을 더듬고
백지에 그려진 말간 수채화가 될 것이기에